



## Deloitte Newsletter

###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5 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지난 8 월 6 일 발표한 2015 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상속증여세율 조정과 가산세 제도 개편의 경우 연구기관 및 조세전문가들이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공론화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 회계법인 '빅 4'도 인터넷은행 경쟁 가세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금융권이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회계법인 빅 4 도 본격적으로 경쟁구도에 가세해 신사업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계와 재무 자문은 물론 '핀테크'의 총아인 인터넷은행의 경영전략까지 여러 분야에서 신시장을 창출, 새 수익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V 에 앞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발표한 3 곳도 최근 대형 회계법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말께 선정될 인터넷은행 후보 0 순위로 꼽히는 다음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KB 국민은행 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딜로이트를 회계와 재무자문사로 일찌감치

낙점했습니다. 그 외 KT와 교보생명·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KT 컨소시엄'은 EY 한영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 PwC는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SK 텔레콤과 기업은행이 참여하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과 손을 잡았습니다.

### 회계사 감사대상 주식투자 금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감사 대상 기업의 실적, 인수합병(M&A) 등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월 13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직업윤리에 대한 회원집합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관련 개선방안' 가운데 직업윤리 의무연수시간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자 한공회에서 실시하는 의무연수 중 직업윤리 이수시간을 현재의 2시간에서 8시간으로 4배 확대했습니다.

### 회계법인 삼정 KPMG 'Culture & Entertainment 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 KPMG가 지난 10월 7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본사에서 '제2회 Culture & Entertainment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을 핵심동력으로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 산업은 한류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회계환경은 복잡해지는 가운데,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삼정 KPMG는 작년에 이어 해당 산업의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향상 및 동종업계의 공통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회계 및 세무 이슈사항은 물론 이전가격과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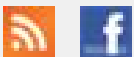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꼼짝마" OECD 규제안 마련

OECD는 2012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의미하는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핵심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나라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실정입니다. OECD 규제안에는 국가 간 세금 정책 차이와 쌍방 조약을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담겼으며,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수익을 이전하거나 수익을 낮추려고 고세율의 국가로 부채를 이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세부적인 재무현황 등을 해당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 삼일회계,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포럼 개최

삼일회계법인은 10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는 지난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2016년부터 15년간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지침이 될 사안입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여 동안 전세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정책담당자들이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엄선한 17개 지향목표와 169개 이행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